

신동빈 “AX는 성장 아닌 생존 과제… CEO 먼저 움직여야”

〈롯데 회장〉

〈인공지능 전환〉

하반기 롯데 VCM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논의
10여개 AI 에이전트 선보여
식품·유통 등 사업 본질 집중

롯데는 15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과 롯데지주 대표이사 및 실장, 각 계열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하반기 롯데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하반기 VCM에서는 상반기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경영 방침을 공유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수익성 중심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면밀하게 논의했다.

이날 VCM은 미래학자 겸 경영 컨설턴트인 더그 스티븐스(Doug Stephens)의 외부 강연으로 시작했다. VCM에 외국 연사를 초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그 스티븐스는 글로벌 우수 기업의 전략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롯데 경영진에게 AI 트렌드 변화 및 글로벌 시장에 관



김대일(왼쪽부터) 세브일레브 대표, 서정호 롯데웰푸드 대표, 이승민 롯데알미늄 대표,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정기호 롯데상사 대표가 16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롯데 VCM(옛 사장단회의)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

한 인사이트를 소개했다.

이어 노준형 롯데지주 대표이사와 고정욱 롯데지주 대표이사는 각각 그룹 하반기 경영 전략과 재무 전략을 발표했다. 식품, 유통, 화학, 호텔 부문의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각 사업의 본질에 집중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롯데는 VCM에 앞서 그룹 AX 추진 현황과 사례를 소개하는 ‘AI 에이전트 전시’도 진행했다. 전시에서는 음성과 모션 인식 기반의 AI 비서와 더불어 가격 모니터링, 수요예측, 글로벌 시장전망 분석 등 현업 적용 목적으로 개발한 10여개 AI 에이전트를 선보였다.

롯데그룹은 AI를 미래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전사적인 AI 전환(AI·X·AI Transformation)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일하는 방식과 의사결정, 고객 경험, 사업 운영 전반을 AI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신동빈 회장은 최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5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CEO AI 교육’에서 “AX는 기업의 성장이 아닌 생존이 걸린 중요한 과제”라며 “그룹이 AX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CEO가 최전선에 나서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롯데 VCM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롯데지주 대표이사 및 실장, 각 계열사 대표 등 80여 명이 모여 그룹의 경영 방침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린다.

상반기 VCM에서는 사업별 선결과제로 ▲핵심 브랜드 가치 제고(식품) ▲상권 맞춤형 점포 전략을 통한 고객 만족 극대화(유통) ▲정부 정책에 맞춘 신속한 구조조정·스펙셜티 중심의 포트폴리오 고도화(화학) 등이 제시된 바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김범석 쿠광Inc 의장 대기업 총수 지정 효력정지

법원이 김범석 쿠광Inc 이사회 의장(사진)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쿠광과 김 의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그 효력을 멈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대기업 총수로서 처야 하는 친인척 주식 보유 현황 보고 등 각종 공시 의무를 당분간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처분 효력을 그대로 둘 경우 신청인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갈등은 공정위가 지난 4월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새로 만든 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첫 타깃으로 삼으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이 쿠광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쿠광의 동일인을 기존 법원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바꿨다. 하지만 쿠광 측은 해당 친족이 물류 부문 전문가로서 일할 뿐 경영 핵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미국 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하거나 형사 처벌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

이번 사건은 1980년대 동일인 제도가 생긴 이래 기업이 정부의 지정 처분에 정면으로 불복해 법정 싸움을 벌이는 첫 사례다.

공정위 측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본안 판결의 결과와는 무관한 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 1면 ‘청년층 취업자 수…’서 계속

임금근로자 8만명 감소

연령별로 보면 20대(-19만9000명)와 40대(-1만9000명)에서 취업자가 줄었고, 60대 이상(21만1000명), 30대(6만5000명), 50대(3000명)에서는 증가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19만7000명 감소해 44개월 연속으로 후퇴했다.

임금근로자 수는 224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1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1만6000명)가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5만1000명)와 일용근로자(-4만5000명)는 줄었다.

6월 고용률은 63.4%로 전년동월 대비 0.2%포인트(p)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0.1%p 내려왔다.

15~29세 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 대비 1.7%p 하락했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 이후 2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6월 실업자 수는 8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명(1.2%) 늘어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화그룹, 사업구조 재편 본격화… 3세 경영구도 ‘선명’

㈜한화 인적분할 안건 주총 통과
오너 3형제, 사업 영역 명확해져

㈜한화의 인적분할 안건이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한화그룹의 사업구조 재편이 본격화됐다. 방산·조선·에너지 등 전략사업과 기계·유통·로보틱스 사업을 분리해 사업별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김동관 부회장과 김동선 부사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 구도도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15일 서울 중구 로얄서울호텔에서 열린 제75기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주총에는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만 상정됐다. 김우석(㈜한화 대표)의 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개회부터 의결까지 약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분할은 상법상 단순·인적분할 방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

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한화는 존속하고 일부 사업과 자회사 지분을 떼어 신설법인인 ‘한화머시나리언서비스홀딩스’(가칭)를 설립한다. 분할 비율은 존속법인 0.7563533, 신설법인 0.2436467로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약 76대 24다.

존속법인에는 방산과 조선·해양, 우주, 에너지, 금융 관련 사업이 남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등 그룹의 핵심 계열사

지분도 존속법인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신설법인에는 시큐리티와 반도체 장비 등 산업기계 사업을 비롯해 유통, 호텔·레저, 로보틱스 등 테크·라이프 사업이 편입된다. 신설법인은 관련 자회사 관리와 신규 투자를 담당하는 사업지주회사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업 재편으로 한화그룹 오너 3형제의 사업 영역도 한층 명확해졌다고 보고 있다. 장남 김동관 부회

장은 방산·조선·에너지 등 그룹의 핵심 성장사업을 총괄하고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금융 부문을 맡는다. 삼남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은 신설법인을 중심으로 유통·서비스와 로봇·반도체 장비 등 테크·라이프 사업을 이끌게 된다.

사업 영역이 분리되는 만큼 존속법인과 신설법인도 각자의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신설법인은 2030년까지 설비투자 2조1000억원, 연구개발(R&D) 2조원, 인수합병(M&A) 6000억원 등 총 4조7000억원을 투입해 연평균 30%의 매출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존속법인도 방산·조선·에너지를 중심으로 핵심 사업 경쟁력을 높여 같은 기간 연평균 두 자릿수 매출성장률을 목표로 한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ASML, 2분기 깜짝실적… 내년 EUV 장비 생산능력 30% 확대

삼성·SK 등 반도체 기업 투자 주효

반도체 노광장비 독점 기업 ASML이 시장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극자외선(EUV) 장비 생산능력을 내년 30%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고 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D램에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사이클이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15일 ASML에 따르면 회사는 2분기 매출 93억2600만유로(약 15조9000억원), 순이익 29억1800만유로(약 5조원)를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며 회사가 제시한 전망치(84억~90억유

로)를 상회했다. 신규 노광장비 판매는 86대로 전 분기(67대)보다 19대 늘었고 서비스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호실적에 힘입어 ASML은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를 기존 360억~400억유로에서 430억~450억유로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4월에 이어 석 달 만의 재상향으로, 전망치 하단만 달성해도 지난해 매출(327억유로)보다 30% 이상 성장하게 된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110억~120억유로(약 19조~20조원)로 제시하며 2분기 실적을 약 20% 웃도는 성장을 예고했다.

여기에 올해 약 65대인 EUV 장비 생산능력을 내년 30% 확대하고 2028년 추가 증설도 검토하는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심자외선(DUV) 이머전 장비 역시 올

해 약 130대에서 내년 30% 증설한다.

ASML은 올해부터 분기 수주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증설 계획은 고객사의 중장기 투자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장비 인도와 매출 인식이 실제 주문보다 1년 이상 늦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에는 2027~2028년 투자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수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ASML의 1분기 IR 자료 기준 시스템 매출에서 한국 비중은 45%로 단일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용도별로는 메모리(51%)가 로직(49%)을 앞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양산과 첨단D램 전환을 위해 EUV 도입을 확대한 영향이다. EUV 공급 부족이

메모리 증설의 병목으로 지목돼온 만큼 생산능력 확대는 국내 업체들의 첨단 메모리 투자 여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장비 투자 확대 흐름은 시장 전망에서도 확인된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올해 한국의 300mm 랩 장비 투자가 전년 대비 27% 증가한 약 296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전체 투자 규모도 올해 1330억달러에서 내년 사상 처음 15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경영자(CEO)는 “AI 관련 투자가 첨단 로직과 메모리 칩 수요를 견인하면서 고객사들이 생산능력 확장을 가속하고 있다”며 “상반기 수주 유입은 극도로 강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



metro